

사회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

최 재 길

현시기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도덕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사회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도덕관을 튼튼히 세우고 고상한 품모를 갖추어나갈수 있을뿐아니라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도덕교양을 계속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어나가는것을 숭고한 도덕적의무로 여기고 그것을 생활화, 인생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8권 270페이지)

도덕교양은 사상교양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그런것만큼 사상교양에서는 도덕교양을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일관성있게 내밀어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도덕교양은 사회주의도덕의 본질적특성과 사회주의사회발전의 요구에 맞게 진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도덕은 인간의 사회적본성인 자주성과 창조성을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도덕이며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도덕이다.

그런것만큼 마땅히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도덕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는 무엇보다먼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의리로 간직하도록 하는것이다.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이고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당과 수령에 의하여 보람찬 혁명의 길에서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게 되며 당과 수령의 사랑과 보살핌속에서 참다운 삶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것만큼 혁명하는 사람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전사의 제일생명이요 일심단결의 근본핵이며 그것은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에 바탕을 두고있는 가장 고결한 정신도덕적품성이다.

혁명의 근본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혁명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가장 숭고한 도덕적의무가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는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신념화되어야 할뿐아니라 혁명적량심에 기초한 도덕에 의하여 담보되어야 가장 공고하고 변함없는 충실성으로, 진실하고 순결하며 절대적인 충실성으로 될수 있다.

혁명가에게 있어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의무이기 전에 영예이고 량심이어야 하며 의리이고 실천이어야 한다.

사람들이 지녀야 할 의리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자기들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참다운 삶을 빛내여주는 당과 수령에게 충정다하는것보다 더 숭고한 혁명적의리는 없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의리로 간직한 사람만이 어떤 역경속에서도 자기 운명을 당과 수령에게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과 수령의 사상과 뜻대로 살며 일해나갈수 있다.

수령은 당이고 당은 곧 수령이며 위대한 수령에게 대를 이어 충정다하는것은 혁명가

들의 본분이고 최고의 혁명적의리이다.

사회주의도덕교양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오직 자기 수령, 자기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의리로 간직하도록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의리로 간직한다는것은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이 받들어나가며 당과 수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새기고 그에 보답하기 위하여 끝까지 충정다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력사가 보여준바와 같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량심화, 도덕화하지 못한 사람은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받들고 옹위할수 없으며 당과 수령의 사상과 뜻을 변함없이 받들어나갈수 없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배신자들은 교활한 수법으로 혁명의 수령들을 악랄하게 헐뜯고 수령의 령도에 대하여 《독재》니, 《인권침해》니 하면서 비방증상함으로써 추악한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로서의 본색과 비인간적면모를 드러내놓았다. 이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말로만 부르짖고 그것을 혁명적의리로 간직하지 못하면 초보적인 인간도덕마저 저버리고 반혁명적범죄의 길로 굴러떨어지게 된다는것을 실증하여준다.

당과 수령의 혁명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자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의리로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위업이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수행되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야만 승리할수 있는것만큼 사회주의도덕교양에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의리로 간직하도록 하는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도덕교양을 통하여 당과 수령의 믿음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은 당과 수령에게 충정을 다하는것이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쳐 성실하게 일해나갈 때 참된 혁명가의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고 빛내일수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게 된다.

사회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할 때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가 보건말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숭고한 높이에서 발휘하게 되며 일상생활에서 공고화하고 실천활동에 구현해나가게 된다.

사회주의도덕교양에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위대성, 사상과 령도의 정당성을 깊이 체득한데 기초하여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서 변함없이 당과 수령과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숭고한 혁명적의리의 체현자로 자라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는 다음으로 혁명선배들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세우고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도록 하는것이다.

혁명선배들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켜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혁명선배에 대한 태도는 혁명에 대한 태도문제이며 그것은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혁명선배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에 대한 태도문제인 동시에 혁명가들의 도덕의리에 관한 문제이다.

사회주의위업은 세대에 세대를 이어 선배들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후대들이 계승발전

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전진하며 완성되게 된다. 혁명선배들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그들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혁명업적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며 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고귀한 밑천으로 된다.

혁명선렬들은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웠으며 고귀한 혁명업적을 쌓았다. 혁명선렬들의 영웅적투쟁이 있었기에 혁명의 길이 열릴수 있었고 혁명의 전취물이 마련될수 있었으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새 생활이 꽃피날수 있었다.

그러므로 혁명선배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어길수 없는 혁명적의리이며 숭고한 도덕적의무로 된다.

사회주의도덕교양에서는 바로 혁명의 선구자들도 혁명위업을 위하여 생을 바치고 공적을 남긴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 고상한 도덕기풍을 세우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혁명선배를 존대한다는것은 혁명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앞선 세대 혁명가들을 적극 내세우고 그들의 혁명정신과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며 계승발전시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역사는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그들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갈 때에는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되지만 혁명선배들을 저버리고 그들의 업적을 부정할 때에는 혁명이 중도반단되고 좌절되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는 당과 국가의 지도적지위를 차지한 기회주의자들에 의하여 혁명선배들을 모독하고 그들의 업적을 말살하는 배신행위가 감행됨으로써 사회주의의 영상이 흐려졌으며 끝내는 사회주의제도자체가 허물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는데서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도록 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잘 말해준다.

사회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여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 고상한 도덕기풍을 높이 떨쳐나갈수 있다.

혁명의 선행세대들의 혁명사상과 혁명정신, 고귀한 투쟁업적과 투쟁경험, 그들의 혁명가적풍모를 대를 이어 계승하고 따라배우도록 하는 사업은 사회주의도덕교양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도덕교양을 통하여 혁명선배들이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당과 수령을 어떻게 받들어왔으며 혁명의 난국을 뚫고나가는 길에서 어떻게 살며 투쟁하였는가 하는것을 똑바로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할 때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선배들속에서 발휘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위업에 대한 헌신성, 불굴의 투쟁정신을 적극 따라배울수 있다.

사회주의도덕교양에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진정한 혁명가라면 누구나 혁명선배들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는것이 혁명가로서의 영예와 존엄을 지키고 혁명위업을 승리로 이끌어나가는 길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것을 혁명의 요구로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는 다음으로 스승과 웃사람을 존경하도록 하는것이다.

스승과 웃사람을 존경하는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도덕이며 혁명동지들사이에 지켜야 할 의리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를 배워준 스승이 있기마련이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스승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품성을 지녀야 하며 국가적인 명절날이나 스승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 진심으로 축하도 해주어야 한다.

자기를 배워준 스승을 잊어버리고 존경할줄 모르는 사람은 량심도 의리도 없고 인정미도 없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조국과 인민이 잊지 못해하며 추억하는 참된 인간이 될 수 없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자기 스승을 존경하는 기풍이 확립될 때 교원들이 교육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후대교육사업을 더 잘해나갈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웃사람과 아래사람사이의 관계는 결코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사이의 관계인것이 아니라 다같이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동지들사이의 관계이다.

아래사람은 웃사람을 보다 중요한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귀중한 혁명동지로서 존경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야 혁명적인 사업체제와 질서를 세울수 있으며 집단의 화목과 단합을 보장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도덕교양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스승과 웃사람을 존경하는 고상한 도덕기풍을 세우도록 하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사회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는 다음으로 레절과 공중도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는것이다.

레절과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사회생활의 중요한 요구이다.

레절과 공중도덕은 사람들의 품격과 문명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사람들사이에 때와 장소에 따라 인사레절을 잘 지키지 못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언어레절을 잘 지키지 못하며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중장소에서 지켜야 할 도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

레절과 공중도덕을 잘 지켜야 사람들사이의 관계를 깊이할수 있으며 사회에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을 세울수 있다.

오늘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문명국이다. 그런것만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레절과 공중도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기 위한 사회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은 사회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를 잘 알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고상한 도덕기풍을 철저히 확립해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